

우유 섬유 대량생산 본격화

독일, 우유 추출 단백질로 섬유 만들어 ... 세탁 가능

우유의 단백질에서 추출한 카제인으로 만든 섬유가 대량으로 생산될 전망이다.

독일의 생화학자 겸 패션 디자이너인 양케 도마스케는 우유의 단백질에서 추출한 카제인(Casein)으로 만든 섬유인 <Qmilk>를 2012년부터 대량생산할 예정이라고 11월16일 밝혔다.

<Qmilk>는 영어의 질(Quality)과 독일어의 우유(milk)를 합한 말로, 실크처럼 부드럽고 빨거나 말리는 것도 가능하며 독일섬유연구협회(GTRA)로부터 혁신상도 받은 바 있다.

도마스케는 “1930년대부터 우유 섬유가 개발되기 시작했지만 아크릴 비중이 컸다”며 “화학제품이 아닌 유기 제품만으로 섬유를 만들어 화학섬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또 “2년간의 연구 끝에 우유를 단백질 가루로 만들어 끓인 뒤 압력을 가해 섬유로 만들었다”며 “현재 kg당 생산가격이 20유로로 일반 섬유보다는 비싸지만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단가가 낮아질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일부 자동차기업 및 의료산업체가 좌석 시트나 침대 시트용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1/16>